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시편 29:10-11, 에베소서 1:1-2

정운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이 거룩한 날에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천 년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소중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

오늘은 엡1:2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여러분, 행복하신가? 평강이 있으신가? 역지로 아멘 하는 분들이 평강히 많은데, (웃음) 이해가 된다. (웃음) 오늘 평강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에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엡1:2에 나오는 평강은 그리스어로 ‘에이레네(eirēnē)’라고 한다. 평화, 복지, 번영, 풍요를 의미한다.

(1) 원래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영어로는 relationship,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을 말한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어를 차용하여 복음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났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내가 죄인인 것 같다. (웃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석꾼은 천 가지 근심, 만석꾼은 만 가지 근심이 있는 법이다. 나에게는 돈이 많은 천척이 있는데, 재산이 수천억 원이다. 그런데 늘 손을 떨더라. 늘 드나드는 곳이 법정이다. 빌딩이 평강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재판이 걸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다.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빌딩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으라는 것이다.

(2) 둘째로 에이레네는 평강의 때, 평화의 때를 말한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잠시 생기는 평화의 때인 것이다. 옛날에는 이민족이 쳐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없는 때가 바로 이 에이레네, 평화로운 때다. 우리도 지금 휴전 중 아닌가? 지난번 북한이 북핵실험으로 도발했는데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일이 좀 빼졌다고 한다. (웃음) 이렇게 흔들었으면 좀 흔들려야 하는데, 우리는 한 번씩 겪던 일이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많이 두려워했다고 하더라.金正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그렇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웃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쟁과 같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도, 질병, 갈등 다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은 잠깐의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다.

(3) 이 평강은 복된 번영을 가지고 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롬8:2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이다. 기뻐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나는 앞으로 딱지를 만들어서 때려고 한다. 다니다가 램프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딱지를 붙이겠다. 5만 원. 집사님은 10만 원. 장로님은 100만 원. (웃음) 법적인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겠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1:2).”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불평, 불만, 짜증을 가질 자격이 없어져 버렸다. 이 영적인 법과 질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3) 에이레네는 또, 평화의 조약이 타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이다.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전쟁으로 늘 시달렸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샬롬’ 하고 이야기했다. ‘안녕’이라는 뜻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인사를 질문형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식사하셨습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 때에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했다. 이 ‘팍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의 피스(peace)로 바뀐다. 그런데 팍스는 힘과 권력을 가지

고 평정해 버린, 강제로 이룩한 평화를 말한다. 우리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다. 절대권력자에 의해서 평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해도 괜찮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평안이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란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길지 않으면서, 바울의 신학, 교회론과 교리를 요약한 중요한 책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평강을 누리라고 말한다. 에베소는 바울 사역의 결정체였고 세계복음화의 센터였다.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모든 경험을 거친 끝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준비한 센터가 에베소였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은혜와 평강에서 떠날까봐. 참된 평안을 누리야 하는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이다. 너무 사명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진 중요한 인물들이다. 우리가 살아야 서울, 수도권이 산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북한, 중국, 전 세계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누린 평안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린 평안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엡6:11-20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다. 사명이 큰 만큼 사단은 역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면, 오히려 그들의 공격은 우습게 될 것이다. 탱크가 지나가는데 화살을 쏘면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북한을 별로 안 두려워하는데, 미국이 가진 항공모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다(엡6:14-17).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전쟁을 위해 사실적으로 나가야 한다. 구약에서 요셉 같은 인물은 어떤 평화를 누렸는가?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젊을 때는 노예생활을 해 보아야 한다. 밀밭에서 밭도 안 되는 어려움도 당해 보아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 않나? 이 고생이 10년, 20년 쌓일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법이다. 편하게만 있으려고 하서는 이 응답은 결코 받을 수 없다. 요셉처럼 노예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란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세 친구들은 뜨거운 불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나?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예수님, 지금 평안하세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무 행복해하시고 평안하셨을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셨음을 체험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육아가 참 힘든 것인데 다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살릴 램프를 키우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 청소년, 대학이 다 무너져 있다. 그 문화가 다 오염되어 있다. 우리 램프들이 이 세상에서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옥같은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 과학자, 선생님이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1. 그런데 인간은 왜 이런 평화와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1)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도 참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보라. 내가 그날로 목사 안 하겠다. (웃음) 광주에 종합병원 의사가 있는데, 평강히 존경받는 분이였다. 그런데 주변은 지옥이었다. 사회활동 봉사활동 다 하는데, 가정은 지옥이었다. 부인을 날마다 때리는 것이다. 그분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참된 평화는 없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게 된다.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영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다. 감각이 없다. 무엇이 좋고 그른지를 모른다. 육적인 것만 살아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갖는 평안은 임시, 잠시일 뿐이다. 유보된 평안일 뿐이다. 언제 저주, 불행이 올지 모른다. 틀린 평안이다. 이런 주에도 마약 환자들을 많이 만났다. 마약 때문에 가정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한다. 그게 평안인가? 틀린 평안이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최고의 악이고 가장 큰 문제다. 거짓 평안, 위장되고 포장된 평안이다. 본인조차도 속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행복하겠지, 평안하겠지?’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면 더 불행이 있다.

(2) 악한 영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정신, 인

생 속에 사단이 깊이 개입하니 평강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엡2:2에,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우리 체질이 그렇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다. 그래서 엡2:3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결과 어떻게 되는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제양 만날 수밖에 없는 개인, 가정, 가문, 사회가 된다. 마귀를 따라가면 타락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며 욕심 따라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행하게 된다. 사실적인 예를 들겠다. 일본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했더니, 평강히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 있었다. 왜 여기 왔느냐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다는 것이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놀리고, 누우면 옆에 귀신이 같이 누워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복음을 받고 이분이 치유되어 버린 것이다. 또 다른 분은 아빠가 일본인, 엄마가 한국인인데, 통일교에서 억지로 결혼시켜서 태어난 것이다. ‘잘못 태어났구나’ 해서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받고 살았다고 한다. 통일교 세계대회를 세 번이나 갔는데 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이 비오는 날에 밖에 있다가 식당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불러서 들어갔는데, 복음을 거기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답을 얻었다. 엄마가 죽도록 해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고도 한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그 다음이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3)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 때, 그 인생은 만족이 없으며,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평강을 모르는 삶은 근근이 연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딤후3:1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영적 상태, 마음 상태로 사람들은 인기, 돈, 권력,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가지면 성공이 아니라 멸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우리는 전도를 위한 스포츠, 복음을 위한 산업과 경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 그리스도를 위한 결혼을 해야 한다. 좋아서 하는 결혼은 깨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를 받아서 해야 한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1) 근본 문제와 그 해결의 답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참된 평안의 답을 얻게 된다. 롬5:1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회사에서 사장과 갈등이 있으면 승진이 되겠는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겠는가. 스티브 잡스가 행복했는가? 명상운동 하다가 암 걸려서 죽었다. 많은 사람들을 스마트폰 중독에 빠뜨리고 갔다. 유대인을 닮아서 성공할 수 있는가? 성령인도를 받아서 복음 안에서 교육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믿음의 스타일이야 한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길 믿고 자녀들을 내버려 두라. (웃음) 너무 간섭하니깐 아이들을 망친다. 자녀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일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줌마 한 분이 대답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민하다가 믿게 되었어요.” 정신이 이상한 분인가 싶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명문대를 다니고 일본에서도 명문대를 나와서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하니까 고민을 안 하는데. (웃음)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갈등이 계속 오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했는데, 어떤 분이 이 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30분 만에 복음 받고 평평 울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 버렸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쉽게 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준비되면 된다.

(2)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천명, 사명, 소명을 발견할 때, 그 성도는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요셉은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고 있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 흔들렸다. 꿈 해석해준 사람이 연락이 없었기까. 2년 후에 연락이 왔다. 하나님은 시간 관념이 없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한다. 늦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추신수는 7년 동안 월급 100만 원 받고 살았는데, 결국 지금은 천억 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천억만 갚아주면 모든 어려움은 이길 수 있겠다 하는데. (웃음) 천억 없을 때부터 응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좀 늦더라도 믿고 기다리고 참으면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선교를 이해해야 한다. 케냐에 김동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제

자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 않나? 이 제자분이 전쟁 일어나는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가 보니 다 뜯어갔다고 한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땀감으로 쓴다고 그런데 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교사님이 한 제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9명의 형제가 있는 분인데, 8명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혼자 남은 이분이 복음을 받고 생명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번에는 직업훈련원을 만드는데, KOICA에 예산 지원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김태호 국회의원이 케냐에 왔다가 이 현장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버렸다. 돌아가서 이 현장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시켜 보낸 것이다. 케냐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 왔다고 한다. 어떤 뻥이 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뻥이지요.” (웃음) 얼마나 맛이 있다. 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치원을 지어주고, 직업을 갖게 해 주고, 그들을 치유해 주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맛있는 인생 아닌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선교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나. 정회권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암이신 것 같은데, ‘죽으면 죽지!’ 이러신다. 그러면서 계속 선교한다. 다른 평안이다. 암이 있어도, 선교가, 복음이 더 중요하다. 병원에도 안 갔다고 하시더라. 암이 있는 본인에도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

(3)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달란트를 세계화, 전문화시킬 때 하나님의 평강을 24시 누리게 될 것이고, 25시의 응답, 천 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한다. 2주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에 간다. 우리 램프도 교수가 있어서 만나서 같이 말씀운동을 한다. 28살 된 처녀 교수가 있는데,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라고 한다. 이 학과가 문을 닫을 뻔 했는데, 이 램프도 교수님 덕분에 학과를 살렸다고 한다. 화학을 전공한 분이라, 이분이 소방관들에게 불에 타지 않는 옷을 만들어주도록 연구를 해서 폐지될 뻔한 학과를 살려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이분이 다문화화를 위한 동아리를 만든다고 해서 나도 도움을 줬다. 동아리의 지도교수가 되어 주시고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병부 선교사님 제자인 통가 램프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팀이 되기로 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서울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어를 다 잘 한다. 외국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 전한다. 통가 램프도 복음메시지를 번역해서 몽골에 보내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전문인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 : 참 평안을 누리실 때 오게 될 응답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는가?

(1) 나 자신이 건강하게 된다.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 평화를 누리면 건강하게 된다. 내내혁명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작가가 있다. 이분이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하고 호흡을 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썼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하나님을 추가했다. 연구를 했더니, 건강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55%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였다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건강해져야 한다. 육신이 건강하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진다. 전문분야도 건강해진다. 인간관계와 우리의 영향까지도 건강해진다.

(2)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힘, 평강을 잃어버리면 미운 사람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게 된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3)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이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key가 된다. 지역교회 때 어떤 여자 장로님이 누리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영상이 나왔었다.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했는데, “네, 들을게요!” 하더니,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그분이 지금 중직자가 된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했더니, 저분을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더라, 나도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으면 노숙자 아닌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된 평안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 내 영혼, 내 삶에 왕으로 모셔들여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현장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